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난 부정문의 비교 연구

박 형 우*

< 목 차 >

- I. 서론
- II.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부정문의 차이점
 - 1. 통시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 2. 문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 III. 결론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Negative Sentences in
『Beonyeoksohak』 and 『Sohakeonhae』

Park, Hyeong-woo

The purpose of this papaer i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negative sentences in 『Beonyeoksohak』 and 『Sohakeonhae』, in a point of the diachronic changes and styles. This two books are representative reference of Korean Language history in 16th century.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governed negative sentences in 16th century. The long forms were more in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Sohakeonhae』 than 『Beonyeoksohak』.

Secondly, this tendency may be caused by the restrictions of forming the short forms with complex words and compound words. Thirdly, the tendency of long forms did not govern all negative sentences. Exceptionally negative sentences related with the situation of conversation maintained the short forms.

Fourthly, the formal change of '아니' appeared in 『Sohakeonhae』. And omissions of '-ㄹ- ' occurred more frequently in 『Sohakeonhae』 than 『Beonyeoksohak』.

Fifthly, "不在, 不有, 未有" and "不知, 未知" of Chinese writing in 『Sohak』 were translated literally as negative sentences in 『Sohakeonhae』. And occasionally "無" and others words related with negative meaning were translated freely as negative sentences in 『Beonyeoksohak』.

I. 서론

『소학』이라는 같은 책을 번역한 『소학언해』과 『번역소학』은 우리 국어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번역소학』이 간행된 것이 1518년(중종 13)이고, 『소학언해』가 간행된 것은 1588년(선조 21)이다. 거의 1세기라는 시차를 두고 간행된 두 문헌은 후기 중세국어 중에서도 16세기 국어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료가 된다. 더욱이 『번역소학』은 의역 중심으로, 『소학언해』는 직역 중심으로 번역된 자료이기 때문에 통시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문체상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자료의 통시적 변화에 중점을 두고 논

의를 전개했다. 김태곤(1981), 이영애(1986) 임민규(1987), 남성우(1997), 허재영(1998) 등이 주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를 중심으로 표기법, 형태, 어휘, 문법 범주 등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특히 부정문에 대해서는 중세국어의 일부로 이태욱(2002b), 허재영(2002)에서 다룬 바 있다.

본고에서는 16세기 국어 부정문의 변천과 문체적 특성에 따른 부정문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두 문헌의 비교를 위해서 『소학』의 ‘외편’(가언, 선행) 부분을 번역한 『번역소학』 권6~10과 『소학언해』 권5, 6의 부정문을 모두 정리하여 비교하되,¹⁾ ‘말다’ 부정문의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부정문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유형에 따른 비율과 각 유형의 특징, 그리고 통시적 변천과는 달리 의역과 직역이라는 번역상의 태도로 인한 부정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자료에 나타난 부정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부정문의 차이점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부정문을 부정소²⁾ 중심으로 추출하여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 『번역소학』에서는 539개의 부정문이 쓰였고,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많은 564개의 부정문이 쓰였다.³⁾

- 1)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전체 6권이 모두 전하나, 『번역소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발견된 권3과 권4의 그 일부가 낙장이며, 권1, 권2, 권5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내편’의 경우에는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전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 2) ‘아니’나 ‘묻’을 일반적으로 부정부사로 분류하나 일반 부사와는 문법적 차이가 있으며, ‘아니다’의 ‘아니’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부정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3) 부정문 추출 과정에서 이어진문장이나 안은문장에서 부정소가 사용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부정문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한수가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한다. → 단형부정문 2개

실제로 두 자료는 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의역과 직역이라는 차이 외에도 그 저본(底本)에 차이가 있다.⁴⁾ 또한 번역 과정에서 추가된 협주에도 차이가 있어서 부정문의 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1. 통시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16세기 초에 간행된 『번역소학』과 16세기 말에 간행된 『소학언해』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가장 큰 특징은 장형부정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부정문에서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아진 변화가 16세기 후반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정음 창제와 관련된 몇몇 문헌을 제외하고는 이미 15세기에서부터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⁵⁾ 그리고 16세기 초에 간행된 『번역소학』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은 16세기의 말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번역소학』에서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나던 번역문이 『소학언해』에서 장형부정문으로 바뀐 예를 일부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 ㄱ. 아니 ㄹㄹ쳐도 어디느닌 聖人 아녀 엇더니며 (번소 6:28-29)
 → ㄹㄹ치디 아니 ㅎ야셔 어디롬이 聖人 아니오 므서시며 (소언 5:27)
 ㄴ. 혼자 부귀를 누리고 아스물 어엿비 아니 니기면 (번소 7:49)
 → 만일 혼자 富貴를 누리고 권당을 근심티 아니 ㅎ면 (소언 5:80)
 ㄷ. ㄴ믹 물 가지 ㄴ ㅁ슴을 가져 이시며 (번소 9:73-74)

이 상황에서선 누구도 안 먹지 못한다. → 단형부정문 1개, 장형부정문 1개

4) 『번역소학』의 저본은 『소학집성(小學集成)』로 알려져 있으며, 『소학언해』의 저본에 대해서는 정재영(2000:148)에서는 『소학집설(小學集說)』로 보고 있고, 박기선(2001:81)에서는 『소학집주(小學集註)』라고 밝히고 있다.

5)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에 대하여 그 출발을 16세기로 보는 허재영(2002)의 견해가 있으나, 『번역소학』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16세기 이전에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람의 能히 딴디 몰 하는 바를 딴디며 (소언 6:68)
 ㄹ. 고기 몰 먹게 하디시니 내 넋디 몰 하노라 (변소 9:103)
 → 고기 먹음을 하디 아니 하디시니 내 敢히 넋디 몰 하노라 (소언 6:96)
 ㄱ. 그 모를 아름답게 하면 엇디 넋 사르디게 몰 미츠리오 (변소 8:24)
 → 그 모를 아름답게 하면 엇디 넋사름의게 可히 밋디 몰 하리오 (소언 5:103)

(1ㄱ)은 『번역소학』에서는 단형의 ‘아니’ 부정문으로 나타나던 것이 『소학언해』에서 장형의 ‘아니’ 부정문으로 바뀐 예이다. (1ㄴ)의 경우에는 『번역소학』에서 “어엿비 아니 너기면”이라는 단형부정문이 『소학언해』에서는 “근심티 아니하면”으로 용언이 바뀌고 부정문도 단형부정문에서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ㄷ)은 ‘몰’ 부정문에서 (1ㄴ)과 마찬가지로 번역에 쓰인 용언과 부정문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예이다. (1ㄹ)에서는 『번역소학』에서와는 달리 『소학언해』의 경우에 ‘하디’라는 성분이 개입되었고, 부정문의 형태도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었다. 의역을 위주로 한 『번역소학』과는 달리 『소학언해』의 경우 직역을 하였기 때문에 원문인 “不聽食肉吾不敢忘也”에서 ‘聽’에 대해 “하디”로 번역한 것이다. 또 (1ㄱ)은 『번역소학』에서 단형의 ‘몰’ 부정문이었던 것이 『소학언해』에서는 장형부정문으로 바뀐 예이다.

장형부정문화와의 경향은 이중부정문에서도 나타난다. 『번역소학』에 나타나는 이중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장형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거나 현대국어의 경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소학언해』의 이중부정문은 거의 대부분이 ‘장형부정문+장형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전의 부정문 형식과도 차이를 보이며, 현대국어의 그것과도 차이를 보이는 특이한 형식이다.

- (2) ㄱ. 미양 다시곰 넋고 눈물 아니 흘린 적 업시하니 (변소 9:27)
 → 일즉 여러 번 고터 넋고 눈물 흘리디 아니티 아니하^ㄴ니 (소언 6:24)
 ㄴ. 너는 일도 조심 아니티 몰하노니 이 느미 날 아로몰 구하^ㄴ논디니라.

(변소 9:54)

→ 그 다른 일을 敢히 삼가디 아니티 아니호노니 뻘 알음을 求호는 배
니라 (소언 6:49)

ㄷ. 히여 브리며 도로 보내디 아니호미 올티 아니호니리 (변소 8:22)

→ 可히 히여브리며 도로 보내디 아니티 아닐 거시며 (소언 5:101)

ㄹ. 비록 사오나온 사르미라도 서르 스랑티 아니리 업스니라 (변소
7:39)

→ 能히 서르 스랑티 아니티 몰호느니라 (소언 5:71)

ㅁ. 어딘 이리어든 적다호고 아니히디 말라 (변소 6:15)

→ 어딘 거시 적다 호야 뻘 히디 아니티 말라 (소언 5:14)

이중부정문의 경우 현대국어에서는 부정소를 사용한 부정문을 연속적으로 쓰기보다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이용(없다, 모르다 등)하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2ㄱ)에 쓰인 『번역소학』의 예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중부정문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학언해』에서는 같은 원문에 대한 번역에서 ‘아니’ 장형부정문을 중복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2ㄴ)에서 『번역소학』의 예문은 ‘조심하다’를 부정문으로 바꾸면서 일단 ‘조심+아니하다’ 형식을 이루고 여기에 다시 ‘몰’ 장형부정문의 형식이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소학언해』의 부정문에서는 ‘조심하다’ 대신에 ‘삼가다’가 쓰이면서 ‘아니’ 장형부정문이 중복되어 연결되었다. (2ㄷ)에서는 『번역소학』의 부정문은 장형부정문이 연속된 형식이지만 선행한 장형부정문의 서술어에 명사형 어미가 쓰여 명사절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명사절이 다시 주어가 되어 장형부정문을 이룬 것으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현대국어의 이중부정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학언해』의 부정문은 장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이 그대로 연결된 형식이다.⁶⁾ 특히 마지막의 “아닐 거

6) 송창선(1991:84-88)과 송석중(1993:147-148)에서는 장형부정문에 나타나는 ‘-디’를 명사형 어미나 보문화표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ㄷ)은 ‘{[(~도로 보내)디 아니히]디 아니(홀/호)}ㄹ 거시며’의 구조로 볼 수

시며”에서는 ‘아니호(호)ㄷ’에서 ‘-호-’ 또는 ‘-호-’가 탈락되어 있다. (2ㄷ) 예문도 살펴보면 『번역소학』의 경우 장형부정문과 부정 의미를 갖는 어휘를 이용한 부정문이 함께 쓰이고 있다. 특히 ‘스랑호다’의 경우 ‘-호다’에 선행하는 ‘스랑’을 체언 어근으로 보면, 단형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번역소학』에서도 장형부정문의 형식이다. 그런데 『번역소학』에서는 이중부정문 중 선행 부정문이 ‘아니+호(호)+이’의 구조로 다시 의존명사 ‘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이 된다. 이에 반하여 『소학언해』의 예문에서는 장형의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이 연결된 형식이다. (2ㄱ)은 ‘말다’ 부정문과 관련된 이중부정문인데 ‘말라’ 앞에 선행한 부정문에서 『번역소학』에서는 단형부정문이 쓰였고, 『소학언해』서는 장형부정문이 쓰였다. 이러한 (2ㄱ~ㄷ)의 문장들은 『소학언해』보다 『번역소학』의 예문이 현대국어의 관점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이중부정문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16세기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부정문의 경우에 ‘장형부정문+장형부정문’의 형식이 매우 어색한 우리 문장을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학언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장형부정문의 중복 형식으로 이중부정문이 구성되었다. 직역 위주의 『소학언해』에서 부정문을 일괄적으로 장형부정문화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시 이러한 이중부정문들이 언중들에 의해서 (특히 구어(口語)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이전의 문헌이나 현대국어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매우 적다.⁷⁾ 오히려 직역투의 문

있다. 이렇게 되면 (2ㄷ)은 안은문장 내부에 안긴문장이 중복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7) 매우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번역소학』에서도 『소학언해』과 유사한 형식의 이중부정문이 발견되기도 한다.

혐의ㄷ은 짜흔 삼가디 아니티 몰홀 거시니라 (번소 7:20)

嫌疑로온 스이는 可히 삼가디 아니티 몰홀 거시니라 (소언 5:53)

장이 일반적인 문장이나 구어(口語)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학언해』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부정문은 실제 구어 중심의 언어 생활에서 쓰이던 문장이라기보다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과 직역이라는 번역상의 특징이 만들어낸 특이 형식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⁸⁾

일반적으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을 보이는 예문을 앞에서 이미 여러 개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예문 중에서 특이한 점을 보이는 것이 있다.

- (3) ㄱ. ㅁ슴을 줌가디여 힘서 헝ㅎ야 벼슬 아니헝고 (번소 10:27)
 → ㅁ슴을 줌가 힘 ㅼ 行ㅎ야 다시 벼슬ㅎ디 아니헝고 (소언 6:125)
 ㄴ. 성현 디위에 ㅁ 같가 분별 아니홀거시리 (번소 8:13)
 → 聖賢 地位에 니르디 ㅁ함을 근심티 아니헝리라 (소언 5:93)
 ㄷ. 님굼의 ㅅ소아 올흔대로 되답 아니흔대 님굼이 로ㅎ샤 주기시다 (번소 9:43)
 → 帝의 ㅅ소아 實로ㅼ 되답디 아니흔대 帝ㅣ 怒ㅎ야 죽이시다 (소언 6:40)
 ㄹ. ㄴ딕 ㅁ 헝ㅎ논 이를 헝ㅎ니 (번소 9:73-74)
 → 사롬의 能히 行ㅎ디 ㅁㅎ논 바를 行ㅎ니 (소언 6:68)

(3ㄱ)은 ‘벼슬하다’라는 고유어 어근을 갖고 있는 파생어가 부정문에서 쓰인 예로 『번역소학』에서는 ‘벼슬+아니하다’의 단형부정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이라면 ‘아니 벼슬하다’의 형식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벼슬’이라는 체언 어근 앞에 부정소 ‘아니’가 위치하

8) 실제로 직역 위주의 번역문에서는 전의어의 사용과 같이 실제 구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 개입되어 문장을 이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소학언해』의 경우에도 그러한 예가 보인다.

내의 ㅁ슴 요동 아니ㅎ미 또 ㅁ히 ㅼ 孟子 곧ㅎ리라 (소언 5:9)

甚ㅎ도소니 엇디 ㅼ 시리꾼 살리오 (소언 6:42)

는 것이 우리말 부정문의 특징⁹⁾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도적인 형식의 부정문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장은 장형부정문화가 강력하게 세력을 갖게 된 16세기 후반의 『소학언해』에 와서는 다시 장형부정문으로 그 형식에 변화를 겪게 된다. (3ㄴ)은 체언 어근에 쓰인 단어가 한자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3ㄱ)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 형식의 변화 과정도 일치한다. 다만 번역 과정에서 한자어 ‘분별’이 ‘근심’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3ㄷ)도 ‘더답’이라는 한자어 어근이 (3ㄱ)에서와 같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3ㄷ)의 경우에는 한자어 어근에 독립성이 없는 ‘행(行)’이 쓰인 예문이다. 이 경우에도 『번역소학』에서는 단형부정문의 형식을 취하던 것이 『소학언해』에 와서는 장형부정문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단형부정문 형성의 제약은 사실상 파생어뿐만 아니라 합성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4) ㄱ. 모든 선비들히 오래 어버시를 아니 가뵈니 잇느냐 호여놀 (번소 9:8)

→ 모든 선비 오래 어버이를 보디 몰호였느 이 인느냐 호니 (소언 6:7)

ㄴ. 내 몰 도라와도 네 내 어미를 효양홀다 (번소 9:55)

→ 내 도라오디 몰홀디라도 네 즐겨 내 어미를 효양홀다 (소언 6:50)

(4ㄱ)에서는 『번역소학』에 쓰인 예문은 ‘가뵈다’라는 합성어가 부정문을 이루면서 ‘아니’ 단형부정문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소학언해』에서는 ‘가뵈다’를 ‘보다’로 바꾸고 장형의 ‘몰’ 부정문으로 번역하였다.

9) 우리말 부정문에서 부정소 ‘아니’는 체언 앞에 쓰이지 못한다. 물론 일부 예문에서 ‘아니’의 위치가 체언 앞에 놓이는 일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 의문문이나 이중부정문과 관련된 것으로 부정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문장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체언+이다’의 문장에서도 부정문을 형성할 경우 ‘체언+아니+이다’의 형식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사문의 부정 형식은 향찰이나 이두문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전통적인 것이다.

또한 (4ㄴ)의 경우에는 ‘도라오다’라는 합성어가 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번역소학』에서는 단형의 ‘못’ 부정문으로 번역하였고, 『소학언해』에서는 ‘못’의 장형부정문으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예문들은 (3ㄱ~ㄷ)의 『번역소학』에 나타나는 부정문과는 달리 부정소가 형태소 중간에 끼어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4ㄱ, ㄴ)의 ‘가되다’나 ‘도라오다’가 『번역소학』에서처럼 단형부정문을 형성하는 것은 전체 중세국어의 부정문에서도 매우 드문 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합성어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강화된 16세기 후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미 그 이전에 장형부정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형부정문화는 (1ㄱ~ㄱ)의 예에서처럼 단형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장형부정문이 쓰인 것과는 다르다. 파생어나 합성어가 부정문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단형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장형부정문만 쓰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소학』의 경우 ‘아니’ 부정문에서 ‘아니+체언 어근+하다’의 부정문은 하나의 예도 보이지 않으며, 이는 『소학언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체언 어근+아니하다’의 부정문은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의 경우 모두 합하여 『번역소학』에서 23개의 예문이 보이다가 『소학언해』에 와서는 9개의 예문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번역소학』에서는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못+체언 또는 한자어 어근+하다’ 형식의 부정문은 (3ㄷ) 하나뿐이며, ‘체언 어근+못하다’ 형식의 예문도 2개만 발견된다. 그나마도 『소학언해』에서는 이러한 예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다시 살펴보아야 할 예문들이 있다.

- (5) ㄱ. 아니 빅골폰가 (번소 7:79-80)
 → 아니 빅골폰가 (소언 6:74)
 ㄴ. 오시 아니 열운가 (번소 7:79-80)
 → 오시 아니 열운가 (소언 6:74)

ㄷ. 하늘히 福으로 감느니 네 아니 죽으리라 (소언 5:5)

(5ㄱ)은 ‘비+골프-’의 구조를 갖는 합성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 선행 어근이 ‘체언’이기 때문에 부정소 ‘아니’가 ‘비’ 앞에 쓰여 단형부정문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예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모두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4ㄱ, ㄴ) 그리고 (5ㄱ)은 중세국어 부정문에서 모두 예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문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인용문이라는 것이다. 한문 문장 속에도 등장 인물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예문은 모두 이러한 대화를 번역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소학언해』에서 나타나는 ‘아니 흐다’ 유형을 제외한 단형부정문은 (5ㄱ)을 포함하여 (5ㄴ), (5ㄷ) 3개뿐인데 이들도 모두 인용문이다. (5ㄴ)은 『번역소학』에서도 인용문인데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ㄷ)은 『소학언해』의 협주문에 나타나는 단형부정문으로 『번역소학』에서는 동일한 협주가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형부정문 형성의 제약으로 인한 장형부정문화나 일반적인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구어(口語)까지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부정문을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장형부정문화보다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에 의한 장형부정문화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전반적인 장형부정문화는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보다 강력하게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의 진행 순서로 보아 단어 구조에 따른 단형부정문의 형성 제약이 일반적인 부정문의 형성에까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장형부정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생어나 합성어의 단형부정문 제약이 중세국어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형부정문화가 시작된 시기는 15세기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16세기 말에 간행된 『소학언

해』에서는 『번역소학』에서보다도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유형 \ 서명	『번역소학』(1518)	『소학언해』(1588)
‘아니’ 단형부정문	85 (24.8%)	47 (13.6%)
‘못’ 단형부정문	32 (19.8%)	12 (6.8%)
‘아니’ 장형부정문	258 (75.2%)	298 (86.4%)
‘못’ 장형부정문	130 (80.2%)	164 (93.2%)
단형부정문	117 (23.2%)	59 (11.3%)
장형부정문	388 (76.8)	462 (88.7%)
합계	505	521

‘아니’ 부정문보다도 ‘못’ 부정문에서 이러한 장형부정문화가 더 강력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도 ‘흐다’ 앞에 부정소가 위치한 부정문을 모두 단형부정문에 포함시킬 경우에 나온 것이다. 만약 어휘화된 ‘아니흐다’나 ‘못흐다’가 쓰인 예를 제외하고 일반 용언이 ‘아니/못+용언’ 형식을 취한 부정문을 살펴보면 그 숫자는 더욱 줄어든다. 『번역소학』은 이러한 ‘아니’ 단형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각각 22개이며, 『소학언해』에서는 ‘아니’ 단형부정문은 앞에서 밝힌 대로 3개, ‘못’ 부정문은 2개뿐이다.

『번역소학』에 비하여 『소학언해』의 부정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정소의 형태 변화이다. 『번역소학』에서는 ‘아니’의 형태에 변화를 보이는 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학언해』에서는 변화를 보이는 예문이 보인다.

- (6) ㄱ. 부되 시름 아니흐며 처조식이 원탄티 아니흐돗다 (변소 9:99)
 ㄴ. 父母 | 시름 안이흐며 妻子 | 원탄 안이흐돗다 (소언 6:92)
 ㄷ. 저른 사롬이 레절이 굿디 아니흐니 잇거든 (변소 9:97)
 ㄹ. 점은의 禮節이 或 굿디 안입이 잇거든 (소언 6:90)

(6ㄱ)과 (6ㄴ)은 『번역소학』에 나타나는 예문으로 부정소 ‘아니’의 형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소학언해』에서 같은 원문에 대한 번역문인 (6ㄴ)과 (6ㄷ)의 예를 보면 부정소가 “안이”로 나타나고 있다. 한글 창제 당시 음소 표기를 중심으로 한 연철 표기법이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분철의 경향을 보이는데, ‘안이’는 이러한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번역소학』과 달리 『소학언해』에서는 분철하여 표기한 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¹⁰⁾ ‘아니’를 ‘안이’로 표기한 것은 이러한 분철의 과도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6ㄷ)의 경우에는 (6ㄴ)과는 달리 단순히 ‘아니’가 ‘안이’로 형태 바꿈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니호-’ 또는 ‘아니호-’가 ‘안이’로 형태를 바꾼 셈이다. ‘-호-’ 또는 ‘-호-’에 해당하는 성분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니’의 형태 변화와 함께 (6ㄷ)에서와 같이 ‘-호-’와 관련된 성분의 탈락을 보이는 예문이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발견된다. 특히 『번역소학』에서보다도 『소학언해』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몰’ 부정문보다는 ‘아니’ 부정문에서 이러한 예가 더 많이 발견된다.

- (7) ㄱ. 구차히 어즈럽게 아닐 거시라 호더라. (번소 9:95-96)
 ㄴ. 구차히 어즐업게 아닐 거시라 호더라 (소언 6:89)
 ㄷ. 엇디 다룬 시저레 가스멸며 귀티 아닐 주를 알리오 (번소 7:32)
 ㄷ. 엇디 다룬 시절에 가오멸며 귀티 아닐 줄을 알리오 (소언 5:64)
 ㄱ. 문득 겹박디 몰호야 가난호야 실소케 도익리니 (번소 10:30-31)
 ㄴ. 문득 겹박디 몰호야 반드시 失所홈에 니르리니 (소언 6:129)

10) 이러한 분철의 예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 주로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분철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오직 일즉 子弟의 일을 호디 아니호을 위호디라 (소언 5:3)
 그 말습이며 거동을 만날애 문디 아니호여서 (소언 6:10)

(7ㄱ), (7ㄴ), (7ㄷ)은 『번역소학』에 나타난 예문인데, (7ㄱ)은 ‘아니’ 단형부정문에서 ‘-ᄃᆞ-’나 ‘-호-’에 해당하는 성분이 탈락한 것이다. (7ㄴ)은 ‘아니’ 장형부정문에서 ‘-디 아니ᄃᆞ다’의 ‘-ᄃᆞ-’가 탈락하였다.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에서는 이러한 예가 없고, (7ㄷ)과 같은 장형부정문에서 한자어 어근에 결합했을 것으로 보이는 ‘-ᄃᆞ-’가 탈락한 예가 있다. 그리고 같은 원문을 언해한 『소학언해』의 예문 (7ㄴ), (7ㄷ), (7ㄹ)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를 좀더 보이면 아래와 같다.

- (8) ㄱ. 그 禮物 可히 重히 아닐 것가 (소언 5:42)
 ㄴ. 온 집이 놀라 두려 가 보고 고흔 석여 아니리 업더라 (소언 6:57)
 ㄷ. 可히 히여브리며 도로 보내디 아니티 아닐 거시며 (소언 5:101)
 ㄹ. 어미를 공양호디 몸의 편헌 거시 다 족디 아님이 업더라 (소언 6:19)
 ㄴ. 그 어디디 아닌 이를 닐으며 (소언 5:31)
 ㄷ. 나라힌 정스에 참예티 몰게 ᄃᆞ며 (변소 7:36)
 ㅅ. 君行이 듣디 아녀 닐오디 (변소 9:49)
 ㅇ. 君行이 許티 아녀 굴오디 (소언 6:45)

(8ㄱ, ㄴ)은 단형부정문에서 나타나는 예로 ‘것’과 ‘이’라는 의존명사 앞에서 ‘아니ᄃᆞ’ 또는 ‘아니ᄃᆞ’이 기대되는 예문인데 ‘아닐’로만 나타나고 있다. (8ㄷ)도 이중부정문인 점을 제외하면 앞의 예와 다르지 않다. (8ㄹ)에서는 ‘족ᄃᆞ다’와 ‘아니ᄃᆞ’ 또는 ‘아니ᄃᆞ’ 양쪽의 ‘-ᄃᆞ-’가 모두 탈락하였다. 또 (8ㄴ)에서는 ‘아니ᄃᆞ’ 또는 ‘아니ᄃᆞ’이 기대되는데 ‘-ᄃᆞ-’가 탈락하였다. 이외에도 (8ㄷ)은 ‘몰’의 장형부정문에서 ‘몰ᄃᆞ다’의 ‘-ᄃᆞ-’가 탈락했고, (8ㅅ, ㅇ)은 연결어미 앞에서 ‘-ᄃᆞ-’가 탈락한 예이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ᄃᆞ-’의 탈락 현상은 『번역소학』에 비하여 『소학언해』에서 그 예가 많이 증가하였다.¹¹⁾ 또한 ‘몰’ 부정문

11) 『번역소학』에서는 ‘아니’ 부정문에서 ‘-ᄃᆞ-’의 탈락을 보이는 예문이 16개

에서는 이러한 탈락 현상이 『번역소학』에서는 (8ㄷ)과 같은 몇몇 예가 발견되지만, 『소학언해』에서는 전혀 이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를 (6ㄴ, ㄷ)과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 ‘아니^ㄴ하다’가 ‘아니^ㄷ하다>안^ㄴ하다>않다’로 축약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ㄴ, ㄷ)은 『소학언해』에서 부정소 ‘아니’가 ‘안’으로 축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명사형 어미나 관형사형 어미, 또는 모음 어미 앞에서 ‘-^ㄴㅎ-’가 탈락하고 있는 것은 현대국어 ‘않다’의 활용에서 [h]가 실현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않은, 았을, 았음, 았아’ 등은 실제로 [아는, 아늘, 아눔, 아나] 등으로 실현된다. 위의 (8)의 예와 비교해 보면 ‘ㅣ’가 ‘ㅡ’로 변한 것을 제외하면 상당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락이 후대의 『소학언해』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묻’ 부정문에서는 이러한 예가 사라진 것을 고려한다면, ‘아니’ 부정문에서 ‘-^ㄴㅎ-’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ㄴ하다’의 축약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부정문 중에서 특이한 것을 몇 가지 정리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 (9) ㄱ. 나라 다투도록 쉬들 묻^ㄴ하야 (번소 9:99)
 → 날이 다투도록 시러곰 쉬디 묻^ㄴ하야 (소언 6:92)
 ㄴ. 주그며 살며 영화로익며 욱도요매 혼자 달오미 묻^ㄴ홀 거시니 (번소 9:48)
 → 죽으며 살며 영화로으며 륙도욱매 의리에 혼자 달리 흠이 업슬 거시니 (소언 6:44)
 ㄷ. 진실로 날드려 묻도 아니^ㄴ하시며 (번소 9:46)
 → 진실로 믄드려 묻도 아니^ㄴ하시며 (소언 6:42)

우선 (9ㄱ)에서 『번역소학』에 나타난 예를 보면 장형부정문에서 일
 발견되지만,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에서 모두 36개의 예문이 나타나고 있다.

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미 ‘-디’ 대신에 ‘-둘’이 쓰이고 있다. 같은 원문에 대한 『소학언해』의 부정문에서는 ‘-둘’ 대신 ‘-디’가 쓰이고 있다. 사실 『소학언해』에서는 장형부정문 중에서 어미 ‘-둘’이 쓰인 예문은 하나도 없으며, 『번역소학』의 경우에도 장형부정문에서 ‘-둘’이 쓰인 예문은 극히 드물다. 『소학언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는 의고적(擬古的)인 형태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다.¹²⁾ 실제로 ‘-둘’과 같은 어미는 현재 남부 방언에서 일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³⁾ 방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형태 역시 의고적인 표현의 일부가 방언에 살아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ㄴ)에서 보이는 『번역소학』의 예문 역시 특이하다. 장형부정문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몰ㅎ-’에 선행한 ‘달오미’의 분석이 문제이다. 분석을 하면 명사형 어미 ‘-음’에 조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볼 경우 ‘몰ㅎ다’와의 호응에 문제가 생긴다. ‘몰ㅎ다’를 타동사로 볼 경우 일부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성분을 재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 『번역소학』은 의역 중심의 번역이므로 재구하기 어려운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¹⁴⁾ 원문 “死生榮辱義無獨殊”을 보아도 『번역소학』

12) 향가에 나타나는 부정소 ‘不冬’과 ‘毛冬’의 경우 대부분 ‘안둘’과 ‘모둘’로 읽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아니’와 ‘몰’의 고형으로 보인다. 이 때 ‘둘’이 장형부정문에 나타나는 ‘-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부정소가 쓰인 향가의 예문은 모두 단형부정문으로 장형부정문의 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남풍현(1976:60)에서는 이 ‘-둘’을 중세국어의 의존명사 ‘ㄷ’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의 경우 의존명사 ‘ㄷ’에 주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이고, ‘-둘’의 경우에는 ‘ㄷ’에 목적격 조사 ‘ㄹ’이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13) 이러한 예를 몇 가지 들면 아래와 같다.

지금 빨랑 먹들 앓고 뭐 혀? / 손에 힘이 가들 안혀 / 후딱 일어나들 못혀

14) 의역문의 경우에는 원문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 문맥을 고려하여 그 빠진 내용을 추가하여 번역문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

의 해석은 매우 어색하다. 『번역소학』의 번역문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확신을 갖기 어렵다. 만약 오기라면 ‘다르디’가 ‘달오미’로 오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학언해』의 번역문을 참고할 때 ‘몬홀’이 잘못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9ㄷ)에서는 일반적인 장형부정문의 예로 볼 때, ‘몬-’ 다음에 ‘-디’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파악할 경우 ‘-도’는 무엇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장형부정문에서 ‘-디’와 ‘아니/몬 홀다’ 사이에 다른 성분이 끼어드는 일이 거의 없다. 물론 현대국어의 경우에는 일부 조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예가 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디’가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도’가 ‘-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미의 일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¹⁵⁾ 이러한 예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오기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원문 “實不問臣”에 대한 번역으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오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전후 문맥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문장의 전후 내용을 살펴보면, 죽을 위협에 처한 고윤(高允)을 위해 태자(太子)가 거짓말을 해가며 직접 변호하자 태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고윤이 사주했는가를 왕이 묻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고윤은 태자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 묻은 적도 없고, 자신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래 예문을 보면 원문인 “家法在官不奏祥瑞”에는 “님금씨”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으나 의역을 위주로하는 『번역소학』에서는 『소학언해』과는 달리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번역문을 구성하였다.

가무네 디디로 호는 법에 벼슬하여서 祥瑞로운 거슬 님금씨 연줍디 말며
(번소 10:15)

家法에 벼슬에 이서 祥瑞를 드리웁디 아니호며 (소언 6:113)

15) 이태욱(2002:228)에서는 ‘-도’에 대하여 ‘-디’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방언적 차이(‘-도’는 남부방언, ‘-디’는 중부방언)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허웅(1975:375-376)에서는 ‘-디’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번역문에 나타나는 ‘-도’는 ‘-디’와는 달리 ‘역시, 또한’의 의미를 갖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내용의 원문이 “欲丐其生耳實不問臣臣亦無此言不敢迷亂”인데, ‘-도’에 해당하는 ‘亦’이 쓰이고 있다.¹⁶⁾ 그러므로 (9ㄷ)에 나타난 장형부정문은 ‘-디’가 탈락하고 보조사 ‘-도’ 정도가 끼어든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¹⁷⁾

2. 문체적 측면에서의 차이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번역소학』은 의역을 중심으로 번역되었고,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먼저 번역된 『번역소학』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직역 위주로 번역이 이루어진 자료이다.¹⁸⁾ 이러한 번역의 태도로 인해 부정문에서도 두 자료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바로 ‘있다[有]’와 ‘알다[知]’, 그리고 ‘없다[無]’가 부정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우선 ‘아니’ 부정문에서 ‘있다’와 관련이 있는 부정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10) ㄱ. 삼년이라도 도라가 아버지를 되스와 있디 아니흐리 잇거늘 내티니
리 (번소 9:8)

→ 三年이라도 돌아가 되시디 아니호 이 잇거늘 내티니라 (소언 6:7)

ㄴ. 이러코 小人 도의디 아니흐리 있디 아니흐니라 (번소 6; 33)

16) 이 원문에 대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전체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내 사로를 비웁고져 호실뿐이언딩 진실로 날드려 묻도 아니호시며 나도 이 말숨 닐은 줄 업소니 두리스와 그르 연조은 주리 아니이다. (번소 9:46)

그 사름을 비웁고져 호실 뿐이언딩 진실로 臣드려 묻도 아니호시며 臣도 또 이 말숨이 업소오니 敢히 아득호고 어줄홈이 아니롱이다. (소언 6:42)

17) 현대국어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마술을 보여주자.”와 같이 ‘-지(<-디)’가 탈락하고 보조사 ‘-도’가 쓰인 부정문을 찾을 수 있다.

18)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의 간행에 관한 사항은 홍운표(1984)와 鄭在永(2000)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이러듯 호고 小人 되디 아니리 잇디 아니흐니라 (소언 5:31)
 ㄷ. 王曾이 正色호고 닐오디 내의平生 뜨든 더이 님고 비 불오매 잇디 아니흐니라 (변소 10:20)
 → 曾의 平生 뜨디 님고 비불옴에 잇디 아니흐니라 (소언 6:118)
 ㄹ. 삼가 그르흔 일이 업더니 (변소 9:37)
 → 삼가 일즉 허물이 잇디 아니흐더라 (소언 6:33)
 ㅁ. 정스호미 느밋게 디디 아니흐리라 (변소 6: 35)
 → 이 可히 정스흠이 사름의 뒤헤 잇디 아니흐리라 (소언 5:32)

(10ㄱ)의 경우에는 『번역소학』의 부정문에서 “잇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원문과도 관련성이 없다. 이 예문은 원문인 “有三年不歸侍者斥之”를 번역한 것인데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직역하여 원문의 ‘有’를 “잇거늘”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번역소학』에서는 “잇거늘”로 번역하고, 이외에 원문에는 없는 “잇디”를 의역하여 넣었다. 그리고 (10ㄴ)과 (10ㄷ)은 각각 원문인 “如此而不爲小人未之有也”와 “曾平生之志不在溫飽”를 번역한 것인데, ‘未之有’와 ‘不在’에 대하여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에 관계없이 직역적 태도로 “잇디 아니흐니라”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10ㄹ)의 경우에는 “謹慎未嘗有過”라는 원문에 대하여 『번역소학』에서는 의역을 하여 “업더니”[無]로 풀었고, 『소학언해』에서는 ‘未’와 ‘有’를 직역의 태도로 “잇디 아니흐더라”라고 풀고 있다. 또한 (10ㅁ)에서는 원문 “斯可爲政不在人後矣”에 대하여 『번역소학』에서는 ‘不在人後’를 한꺼번에 의역하여 “느밋게 디디 아니흐리라”로 풀었는데 반하여, 『소학언해』에서는 ‘不在’를 그대로 직역하여 “사름의 뒤헤 잇디 아니흐리라”로 풀었다.

결국 ‘不在, 不有, 未有’ 등과 같은 한문 원문을 해석할 때, 『번역소학』보다는 『소학언해』가 보다 충실하게 직역의 태도로 번역하여 ‘잇-’이 부정문에 쓰이고 있다.

또한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알다’와 관련된 부정문에서 두 자료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원문의 ‘不知, 未知’

등에 대한 번역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1) ㄱ. 사름의 어버시 되월 도리를 아디 못흐여셔 (번소 7:30)
 → 사름의 어버이 될 도리를 아디 못흐여 (소언 62)
 ㄴ. 어미와 아들왜 서르 아디 못호미 쉰 히러니 (번소 9:34)
 → 어미와 아들이 서르 아디 못흠이 쉰 히러니 (소언 6:30-31)
 ㄷ. 사름 일울 도를 몰로모로 그러흐니라.(번소 7:9)
 → 사름의 도리를 아디 못흠을 말미암은 연피니라 (소언 5:42-43)
 ㄹ. 어버시 효양흐기를 모르노 사르몬 (번소 8:25)
 → 어버이 효양흐기를 아디 못흐노 이는 (소언 5:104)
 ㅁ. 내쥬내 주근 연유를 모르니라 (번소 10:17)
 → 내요디 믹쥬내 그 연유를 아디 못흐니라 (소언 6:116)

(11ㄱ)과 (11ㄴ)에서는 각각 원문인 “未知爲人父母之道”와 “母子不相知者五十年”의 ‘未知’와 ‘不相知’에 대하여 『번역소학』이나 『소학언해』에서 모두 장형의 ‘못’ 부정문으로 번역을 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11ㄷ), (11ㄹ), 그리고 (11ㅁ)에서는 원문인 “由不知成人之道故也”, “未知養親者”, 그리고 “竟不知其由”의 ‘不知’나 ‘未知’에 대하여 『번역소학』에서는 의역으로 ‘모르다’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번역하였고, 『소학언해』에서는 직역하여 ‘아디 못흐다’로 번역하였다. 이처럼 ‘不知’나 ‘未知’가 나타나는 원문에 대하여 『번역소학』에서는 ‘모르다’와 ‘아디 못흐다’가 불규칙하게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직역이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모든 예문에서 ‘아디 못흐다’ 형식의 부정문이 쓰이고 있다.¹⁹⁾

반대로 같은 내용의 번역문에서 『소학언해』에서는 부정문이 나타나지 않지만, 『번역소학』에서는 오히려 부정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9)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번역소학』보다 『소학언해』의 부정문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학언해』에서 부정문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직역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 ㄱ. 서르 조차 이바디 회집하야 놋드리 붓그리디 아니하거든 (번소 7:16)

→ 서르 조차 이바디 회집하야 편편히 붓그림이 업거든 (소언 5:49)

ㄴ. 長孫 夫人이 하 늘거 니 업서 음식 몬 먹거늘 (번소 9:29)

→ 長孫夫人이 나히 만하야 니 업거늘 (소언 6:26)

ㄷ. 벼슬 몬하야 죽도록 쓰이디 몬하니 (번소 7:20)

→ 일로 좌죄하야 드리티여 어렵살하야 몸올 막츠니 (소언 5:53)

(12ㄱ)은 원문 “相從宴集靦然無愧”를 번역한 것인데, “無愧”에 대해서 『번역소학』에서는 장형부정문 형식인 “붓그리디 아니하거든”으로 번역하였지만, 『소학언해』에서는 그대로 직역하여 “붓그림이 업거든”으로 번역하였다. (12ㄴ)은 “長孫夫人年高無齒”에 대한 번역문인데, “無齒”에 대하여 『번역소학』에서는 의역하여 “니 업서” 이외에 원문에는 없는 “음식 몬 먹거늘”을 추가하여 번역문을 만들었지만, 『소학언해』에서는 “니 업거늘”로만 표현하고 있다. 또한 (12ㄷ)에서도 『번역소학』에서는 원문인 “是沈滯坎壈終身”을 전체적으로 의역하여 “벼슬 몬하야 죽도록 쓰이디 몬하니”로 번역하였다.

결국 원문에 나타나는 ‘不在, 不有, 未有’나 ‘不知, 未知’ 등에 대하여 의역 위주의 『번역소학』은 어휘를 이용한 부정 표현과 부정소를 이용한 부정문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직역을 위주로 하는 『소학언해』에서는 모두 부정소를 이용한 부정문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두 자료의 번역 태도로 인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無’나 부정 의미와 관련 있는 표현에서는 의역의 『번역소학』은 부정소를 이용한 부정문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학언해』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가 없다.

III. 결론

지금까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특징을 통

시적 변화의 관점과 의역과 직역이라는 문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번역소학』에 비하여 『소학언해』에서는 장형부정문화가 더욱 강화되어 단형부정문의 쓰임이 극도로 축소된 모습을 보인다.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은 후기 중세국어 이전에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16세기 말에는 이것이 거의 전반적 추세가 된다.

둘째, 파생어나 합성어가 부정문을 형성하는 경우, 단형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장형부정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학언해』뿐만 아니라 『번역소학』에서도 이미 파생어나 합성어는 주로 장형부정문으로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단형부정문의 형성 제약은 전반적인 장형부정문화보다도 앞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반 부정문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장형부정문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러한 장형부정문화는 구어(口語)에서는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형부정문화가 강력하게 작용한 『소학언해』에서도 ‘아니’ 단형부정문이 일부 보이는데, 모두 인용문으로 구어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그리고 의역보다는 직역 문헌에서 장형부정문화가 우세한 것으로 보아 한문의 번역과 장형부정문화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부정소 ‘아니’는 『소학언해』에 와서 형태에 변화를 보이고 ‘-ㅎ-’가 탈락하는 예가 증가하는데 이는 ‘아니ㅎ-’의 축약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ㅎ다’의 ‘-ㅎ-’는 주로 관형사형 어미나 명사형 어미 ‘-ㄴ, -ㄷ, -ㅁ(음)’ 앞에서 탈락하고, ‘어근+ㅎ다’가 장형부정문을 이룰 때, 어근의 발음이 /ㄱ/, /ㄷ/인 경우에는 ‘-ㅎ-’가 탈락하는 일이다.

다섯째, 『소학』 원문이 ‘不在, 不有, 未有’나 ‘不知, 未知’인 경우 『소학언해』는 직역에 따라 부정문으로 번역하였고, ‘無’에 대해서는 ‘없다’로 번역했으나, 의역의 『번역소학』에서는 ‘不在, 不有, 未有’나 ‘不知, 未

知'인 경우에도 부정문으로 해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無'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문으로 해석한 예가 있다.

주제어 : 『번역소학』(Beonyeoksohak), 『소학언해』(Sohakeonhae), 부정문(negative sentences), 장형부정문화(the tendency of long forms),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the restrictions on forming short forms in negative sentences), 의역(literal translation), 직역(free translation)

참고문헌

- 『原本國語國文學叢林 12 老乞大·朴通事 小學諺解 四聲通解』(1985). 大提閣.
- 『翻譯小學(六·七)』(1984), 홍문각.
- 『翻譯小學(八·九·十)』(1984), 홍문각.
- 김태곤(1981), “小學諺解의 國語學的 研究”,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남성祐(1997), “『翻譯小學』 권6과 ‘小學諺解’ 권5의 翻譯”, 『구결학회』 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 남풍현(1976),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문법연구회.
- 박기선(2001), “『翻譯小學』 卷 4와 ‘小學諺解’ 卷 3의 文體 考察-語彙 選擇과 翻譯 樣相을 中心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3,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 박형우(2003), “한국어 부정문의 변천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지식산업사.
- 송재목(1990), “16세기 언해자료에 나타난 부정법의 특성-‘아니’를 중심으로”

- 으로”, 『언어연구』 2, 서울대학교대학원언어학과 언어연구회.
 _____(1991),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의 통사특성”, 『문학과 언어』
 12, 文學과 言語研究會.
 오석란(1985), “『번역소학』 소고(小考)”, 『새국어교육』 41, 한국국어교육
 학회.
 李基奭 譯(1982), 『新譯 小學』, 弘新文化社.
 이영애(1986),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比較 研究』”, 효성여대 석사학위
 논문.
 이태욱(2002a), 『15세기 국어부정법 연구』, 보고서.
 _____(2002b), 『16세기 국어부정법 연구』, 보고서.
 임민규(1987), “『小學諺解의 國語學的 考察-주로 翻譯小學과 比較를 통
 하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鄭在永(2000), “『翻譯小學』 권3·4에 대하여”, 『書誌學報』 24, 한국서지
 학회.
 허 웅(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허재영(1998),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비교 연구”, 『국어교육』 97,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_____(2002),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홍윤표(1984a), “『翻譯小學 卷之 六·七 解題』”, 『翻譯小學(六·七)』, 홍
 문각.
 _____(1984b), “『翻譯小學 解題』”, 『翻譯小學(八·九·十)』, 홍문각.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